

The Gospel of Mark

Sermon 71 – Sermon Notes

Title: “Our Lord mocked”

Scripture: Mark 15:16-20

Date preached: February 25th 2024**Scripture: Mark 15:16-20**

16 Then the soldiers led Him away into the hall called Praetorium, and they called together the whole garrison. 17 And they clothed Him with purple; and they twisted a crown of thorns, put it on His head, 18 and began to salute Him, “Hail, King of the Jews!” 19 Then they struck Him on the head with a reed and spat on Him; and bowing the knee, they worshiped Him. 20 And when they had mocked Him, they took the purple off Him, put His own clothes on Him, and led Him out to crucify Him.

16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 안에 있는 군본부로 끌고 가서 온 부대원을 모으고 17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 18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19 또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엎드려 절도 하였다. 20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후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Review

Before we turn our attention to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briefly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Last week we looked at Mark's account of Jesus trial before the Roman governor Pontius Pilate. Let's very briefly recap where we are in the process of Jesus' arrest and trials as it is easy to get confused.

Jesus was arrested in the Garden of Gethsemane and taken back into Jerusalem. He would go through six separate trials. The first three were religious in nature and took place before Annas (the former High priest), Caiaphas (the current High priest) and finally before Caiaphas and the full Sanhedrin council. These trials took place throughout Thursday night, or more accurately very early on Friday morning. They were conducted in great haste in order to have all things settled before the Roman court met at around 6am. Roman judges were early birds! So if the Sanhedrin wanted the Roman authorities to pass judgement on Friday before the Sabbath began they had to get Jesus before Pilate early. So these Jewish religious hearings were designed (fixed) to find Jesus guilty of breaking the Mosaic Law. This was duly accomplished. Jesus was found guilty of blasphemy. He claimed to be God. Under Jewish law this meant he could be stoned to death. The problem was that since the Jews were now living under Roman occupation the right to carry out capital punishment had been removed. Therefore in order for Jesus to be executed He had to be found guilty and sentenced under Roman civil law. The Sanhedrin decide that they will tell the Romans that Jesus is guilty of treason. That he is claiming to be the real king and not Caesar.

This was why Jesus was taken very early in the morning to meet the Roman governor Pontius Pilate. Pilate's normal residence was at Caesarea Maritima on the Mediterranean coast, but for the big Jewish feast or festivals he came and stayed in Jerusalem. This pleased some of the Jews, they enjoyed having this important representative of the empire in their presence. This wasn't really why the governor came however. He really came so that he would be on hand to counter any uprising or revolution. As we have noted before Jews were obliged to travel to Jerusalem for the three big pilgrimage festivals (Passover, Shavuot, and Sukkot). This meant that at these times the city swelled to many times its normal size with zealous and patriotic Jews. If anyone wanted to incite a political uprising this would be the perfect time to do it.

As I said last Pontius Pilate had no great affection for the Jews. In fact, he loathed them. We know this because he deliberately caused great offence to the Jews by hanging worship images of the emperor throughout Jerusalem and having coins bearing pagan religious symbols minted. He could have acted in more sensitive ways but chose not to.

His exchange with Jesus is very interesting. As a pagan he's not interested in the Jewish leaders' accusation that Jesus claimed to be God. That issue was of no concern to him, as a pagan what's one more god when you already accept a plethora of deities. However as the Roman emperors' official representative in the region he has to be concerned with the claim of treason. There can be only one emperor so anyone trying to usurp him faces death.

Despite the best efforts of the Sanhedrin to convince him of Jesus' guilt Pilate remains unmoved. It's clear to him that Jesus does not pose a threat to the empire or even the region. He does not lead a vast army who are about to rise up and overpower the Roman military machine. Pilate who despite his failings is no fool has worked out that these men are simply envious or jealous of Jesus. They envy His popularity, His wisdom and the authority He wields. That is why they want Him done away with. Pilate also knows they don't really care about the charge of treason or the well-being of the Roman empire. He is therefore minded to release Jesus.

This greatly infuriates the Jewish leaders who try to convince Pilate that Jesus is a rebel who is leading the people away from their "beloved" Caesar. It's at this point in the proceedings that Pilate learns that Jesus is from Galilee. This area lay under the control of the Roman client ruler Herod Antipas. Pilate thinks that he can pass the problem off onto him. So Jesus is sent to be tried before Herod. This event, trial number 5 is not recorded in Mark. Luke however tells us that Herod was pleased to finally meet Jesus. He had heard much about Him and hoped He might perform a miracle. He asked Jesus many questions, but received no response from the Lord. Angered by this Herod and his men dress Jesus up in an elegant robe and mock Him. He is then returned to Pilate for the sixth and final trial.

It was apparently a custom that on special feast days the Roman governor would release, or pardon a convicted prisoner. It was regarded as a gesture of goodwill that was designed to placate the people and make them believe their overlords were compassionate men. Pilate thinks that this custom provides him with an opportunity. He can use it spare an innocent man a terrible fate. He doesn't want to execute Jesus, and he certainly doesn't want to give into the wishes of the Jewish elite whom he loathes. He gives the assembled crowd a choice. They are to be the ones to decide. They can spare either Jesus, innocent of all sins or a convicted prisoner called Barabbas. Barabbas had led an uprising against Rome and was guilty of murder. Pilate naively thinks that the people will want to have Jesus pardoned. How wrong he was. The Jewish leaders mingle among the crowd in order to stir them up. They begin to scream for Barabbas to be freed. They want Pilate to crucify Jesus.

Pilate reveals himself here to be a weak and indecisive ruler. A man more interested in pleasing the people rather than doing what was right. He could have, should have done what his conscience told him to do. He knew that Jesus was innocent and his own wife had warned him to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righteous man. But Pilate didn't do the right thing. Instead, he has Jesus scourged. He hoped that this brutal and barbaric punishment would be enough. It was not. Even seeing the flesh ripped from Jesus back and legs was not enough to calm the hatred of the crowd. The people demanded that Jesus be executed. Pilate seeking to please the crowd agreed.

This is where we will pick up the story today.

오늘의 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마 총독 본디오 발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마가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는 여섯 번의 개별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처음 세 재판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며 안나스(전 대제사장), 가이바(현 대제사장), 마지막으로 가이바와 산헤드린 전체 공의회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재판은 목요일 밤 내내, 더 정확하게는 금요일 새벽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6 시쯤 로마 법정이 열리기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우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로마 판사들은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에 로마 당국이 판결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일찍이 예수를 발라도에게 데려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 청문회는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를 밝혀내기 위해 짜맞추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의도한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그분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로마 점령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처형하려면 로마 민법에 따라 유죄 판결 선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 □□□□ □□□□ □□□□ □□□□ □□□□. 가이사카아나라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본디오 발라도에게 이른 아침에 끌려가신 이유입니다. 발라도의 원래 거주지는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 마리티마였지만 유대인의 큰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일부 유대인들을 기쁘게 했으며, 그들은 제국의 중요한 대표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 총독이 온 이유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어떤 봉기나 혁명이 있으면 진압하기 위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은 세 순례 절기(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열성적이고 애국적인 유대인들이 도시를 가득 메웠습니다. 누구든지 정치적 봉기를 선동하려면 이 때가 완벽한 시기일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디오 발라도는 유대인들에 대해 큰 애정이 없었습니다. □□□□ □□□□ □□□□□□□□. 그가 예루살렘 전역에 황제의 숭배 형상을 걸어 놓고 이방 종교 상징이 새겨진 주화를 주조하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좀 더 덜 자극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발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교도로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비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러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미 수많은 신들의 존재를 믿는다면 또 하나의 신을 더한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역의 로마 황제의 공식 대표로서 그는 반역죄 주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황제는 단 한 명뿐이고 그를 찬탈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의 유죄를 확신시키려는 산헤드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라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국이나 심지어 그 지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게 분명합니다. 그분은 로마 군대를 압도할 대규모 군대를 이끌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바보가 아닌 발라도는 이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시가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인기와 자혜와 그분이 휘두르는 권위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발라도는 또한 그들이 반역죄나 로마제국의 안정에 별로 관심이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마음먹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이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반역자라고 발라도를 설득하던 유대 지도자들은 □□□□□□□□. 이 시점에서 발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역은 로마의 종속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발라도는 그 문제를 그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헤롯에게 심문을 받으러 가십니다. 이 다섯 번째 재판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헤롯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고 그분이 기적을 행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했으나 그분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헤롯과 그의 부하들은 예수님께 우아한 옷을 입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재판을 위해 발라도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특별한 축제일에 로마 총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를 사면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달래고 그들의 군주가 자비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선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관습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끔찍한 형벌을 겪지 않도록 할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를 처형하고 싶지 않고, 자신이 싫어하는 유대인 엘리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는 모인 군중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 아니면 죄수인 바리바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바리바는 로마에 맞서 반란을 주도했으며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빌라도는 순진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용서해줄기를 비탈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하기 위해 그들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발라도는 여기서 자신이 악하고 우유부단한 통치자임을 드러냅니다. 옳은 일을 하기 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선
 □□□□. 그는 자신의 양심이 사키는 대로 행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결박하다는 것
 을 알았고 그의 아내도 이 의로운 사람과 아무 상관이 하지 말라고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발라도는 옳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예수를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 잔인하고 아만적인 처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등과 다리의 살이 찢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군중의 증오는 가리이지
 않았습니다. □□□□□□ □□ □□ □□□□□□. 군중을 달래려고 발라도는 아예 동의했습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6 Then the soldiers led Him away into the hall called Praetorium, and they called together the whole garrison.

Following the scourging Jesus is led into the Praetorium. This is a Latin loan word that refers to the residence or the headquarters of the Roman governor. It derives from the Latin word “praetor,” which means “leader” or “commander.” In ancient Rome, the “praetor” was a high-ranking official who had a variety of duties, including judging legal cases and commanding troops. In the province of Judea there were two praetoriums. One was located in Caesarea (Acts 23:35) and the other was here in Jerusalem.

As with many smaller details contained in the gospels there is considerable debate as to the exact location of the Praetorium. There are two possible sites. Some argue that it was to be found in the Antonia Fortress near the temple mount. Others claim that the Praetorium was located in the sumptuous building that had previously been Herod's palace. This was located on the Hill of Zion in the western part of the city. Both Philo and Josephus testify that the Roman governors stayed in Herod's Palace while they were in Jerusalem and carried out their trials on the pavement immediately outside it (Josephus, *Jewish Wars*, 2:14:8).

In 2001 some archaeologists discovered some of the pavement remains under a corner of the Tower of David. This is on the western side of the old city where Herod's palace stood. So today the majority position, and the one to which I subscribe is that Jesus was tried, scourged and humiliated at Herod's palace on the western side of the city. This opinion is reflected in the translation choices taken by some of the more recent bible versions. For example the NIV, the ESV and the NASB all insert the word "palace." Anyway now that we have established where we are in terms of location let's get back to the text.

Mark tells us that once Jesus was led into the hall of the Praetorium the whole “garrison” was called together. The word garrison used here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speria*. As I have explained before this is a technical military term to describe a cohort, or the tenth part of a Roman legion. This figure varied throughout history but originally referred to a force of 600 men.

It was however also a term used to describe a smaller force of men. This is I think how it's being used here. It seems unlikely that the entire Roman military force of 600 men would be called out.

but rather that those on duty, or present at that time were called out. Let us see how these Roman soldiers treated the Lord Jesus.

16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 안에 있는 군본부로 □□ 가서 온 부대원을 모으고

채찍질을 당하신 후 예수께서는 총독관저 **Praetorium** 로 끌려가십니다. 이것은 로마 총독의 거주지 또는 본부를 가리키는 라틴어 대출어입니다. 이는 "지도자" 또는 "지휘관"을 의미하는 라틴어 "praetor"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법정관'은 소송 재판, 군대 지휘 등 다양한 임무를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유대 지방에는 두 개의 총독관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리에 있었고(행 23:35) 다른 하나는 이곳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포함된 많은 작은 세부 사항과 마찬가지로 총독관저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가능한 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성전산 근처의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총독 관저가 이전에 헤롯의 궁전이었던 호화로운 건물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곳은 도시 서쪽의 시온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필로와 요세푸스는 로마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헤롯의 궁전에 머물렀고 바로 바깥의 포장 도로에서 재판을 했다고 증언합니다(Josephus, Jewish Wars, 2:14:8).

2001년에 일부 고고학자들은 다윗의 탑 모퉁이 아래에서 포장도로 유적 중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헤롯의 궁전이 있던 옛 도시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수의 의견이자 제가 동의하는 입장은 예수께서 도시 서쪽에 있는 헤롯의 궁전에서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굴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일부 최신 성경 번역본의 번역 선택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NIV, ESV 및 NASB는 모두 "궁전 palace"라는 단어를 삽입합니다. 어쨌든 이제 위치 측면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으므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총독 관저로 끌려가시자 전체 "부대원"이 소집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부대원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스페리아(speria)를 번역한 것입니다. 전에 설명했듯이 이것은 코호트, 즉 로마 군단의 10분의1 부분을 묘사하는 전문적인 군사 용어입니다. 이 수치는 역사에 따라 다양했지만 원래는 600명의 병력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더 작은 규모의 군인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600명으로 구성된 부대원 전체가 소집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근무 중이거나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소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주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 And they clothed Him with purple; and they twisted a crown of thorns, put it on His head, 18 and began to salute Him, "Hail, King of the Jews!"

I am sure that you remember the graphic description I gave last time about the Roman flogging or scourging. The Lord Jesus would have been in almost unbearable physical agony. His back, buttocks and upper legs would have been ripped and shredded by the *flagrum* (whip). He would have lost a considerable quantity of blood and this would have left Him weak and unsteady. But, sadly the abuse is not over. Here our precious Lord and saviour would be made to stand or maybe sit and endure further mockery and humiliation.

You may wonder why these Roman soldiers treated Jesus in this hideous and dehumanizing way. Many of them would have been recruited from distant places. The concerns of the Jews would have been of little importance to them. Most of them had no idea who this man from Galilee was. Why then this vindictive interest in Jesus? Was it simply sport, something to alleviate the boredom of military life. Was it just that these men were brutal men, or was there more to it?

Let us be honest and admit that some men are drawn to the military because they have a propensity towards violence. Regular civilian life provides no outlet for this aggression so the military has a natural appeal. However this description doesn't apply to all those who choose a career in the military. In the Roman empire life in the army meant steady and reliable pay, a chance for adventure and excitement and a good retirement package, if you survived. So why did these normal soldiers resort to this barbarism with Jesus? Well to partially answer this we need to understand the situation

in Judea at that time. The Romans were an occupying military force. We might compare them to the US forces in Vietnam or the British military in Northern Ireland during the “troubles.” The Romans just like the Americans and the British were an unwanted and undesired presence.

The Jews were deeply unhappy about this situation but were not able to raise a sufficiently sized or equipped force to oppose the Romans. Therefore those that strongly objected to Roman occupation formed a resistance movement known as the Zealots. The Zealots were effectively a terrorist organisation that resorted to guerilla tactics. We saw similar things happen in both Vietnam and Northern Ireland.

The Zealots mingled easily among the crowds because in terms of their appearance they looked just like regular Jews. However hidden under their cloaks they carried swords or daggers with which they struck when and where they could. Roman soldiers were regularly ambushed and murdered whilst on guard duty or when walking around town. This naturally led to great frustration and anger among the legion. Everyone around them was a potential enemy, which meant they could never let down their guard or relax. It made for a very stressful and tense existence.

So Jesus represented an opportunity for these men to vent their built up tensions and frustrations. So maybe it was this that led to their extreme over reaction. Let us discover how their mockery of Jesus played out.

Firstly they clothed Jesus in a robe or cloak. This was most likely an old soldiers cloak that had been discarded. When it comes to the cloak's colour there is some disagreement among the gospel writers. John says the soldiers used a "purple robe" (John 19:2), Mark says it was a "purple cloak," and Matthew a "scarlet robe" (Matthew 27:28). Why this apparent contradiction?

An answer for this comes from the subjective nature of describing colours. Even today we cannot always agree on what colour something is. Is it red, orange, maroon, scarlet or burgundy it depends on whom you ask.

The exact colour then is not really important. What the soldiers are doing is trying to dress Jesus up to look like a king or a prince using shoddy duplicates of the real thing. A real king wore a beautiful purple robe. Purple signified royalty.

So here Jesus, the King of kings is being draped with an old soldiers cloak. It was likely a centurion's scarlet cloak, sometimes described as being “purple.”

Secondly they fashion a crown for the the Lord. The crown was made from a thorny bush. There are many plants growing in Israel that possess long thorns.

The crown was probably arranged so that the long thorns radiated outward, this would have resembled the emperor's diadem with symbolic light rays pointing outward. Coins were often minted in the ancient world that showed the emperor or ruler wearing such a headpiece.

This crown was pressed down onto Jesus' head. It was probably not intended as a device to intentionally cause pain but rather to further embellish the mockery. Look, here is the “king” clothed in purple and wearing a crown!

Matthew (27:29) adds that they put a reed in Jesus' hand acting as an imitation sceptre. A sceptre is a staff or wand held in the hand by a ruling monarch. It is a symbol of the monarch's power and signifies their sovereign authority.

With Jesus now “dressed” and arranged as a king they begin their verbal mockery of Him. The soldiers began to hail him, imitating the Latin imperial greeting, “Ave, Caesar, victor, imperator” meaning, “Hail, Caesar, victor, emperor.” Here the title they employ “King of the Jews” echoes the treasonous charge brought against Jesus. Mark of course wants us to identify the irony here. These Roman soldiers think they are making fun of Jesus and the claims He made about Himself when in fact what they are saying is absolutely true.

Let us continue and see what else they do to Jesus.

17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가시관을 얹어 머리에 씌우고서 18 경계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지난 번에 제가 로마인의 채찍질에 관해 생생히 묘사해 드렸습니다. 주 예수님은 거의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등, 엉덩이, 다리 윗부분은 채찍에 의해 뜯기고 갈기리 찢겼을 것입니다.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셨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그분은 약해지고 불안정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소중한 구세주 예수님께서 사가나 앉은 채로 더 많은 조롱과 굴욕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먼 곳에서 모집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갈릴리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잔인하게 대했을까요? 군생활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단순한 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잔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부 남성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 생활에서는 이러한 공격성을 분출할 수 없으므로 군대에 자연적으로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군대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제국에서 군대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급여를 받으면서 모험과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살아남으면 두둑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일반 군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반적인 행위를 하였습니까?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대답하려면 당시 유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인들은 점령군이었습니다. 그들을 혼란의 시기 동안의 베트남에 있었던 미군이나 북아일랜드의 영국군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이나 영국인과 마찬가지로 로마인들도 점령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매우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로마인에 대항할 만큼 충분한 규모나 장비를 갖춘 군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점령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열심당(Zealots)으로 알려진 저항 운동을 형성했습니다. 열심당은 사실상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는 테러 조직이었습니다. 베트남과 북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당원들은 겉보기에 일반 유대인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군중 속에 쉽게 섞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토 속에 언제 어디서나 공격할 수 있는 칼이나 단검을 숨겨 들고 다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나 마을을 돌아다닐 때 정기적으로 매복 공격을 받고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군인들 사이에 큰 좌절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적이었고, 이는 그들이 결코 방심하거나 긴장을 풀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매우 예민하고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쌓인 긴장과 좌절을 해소할 기회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극단적으로 과잉 반응을 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조롱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에게 긴 겉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버려진 낡은 군인들의 망토였을 것입니다. 망토의 색깔에 관해서는 복음서 작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군인들이 “보라색 옷”(요한복음 19:2)이었다고 말하고, 마가복음은 그것이 “자색 옷”이라고 말하며, 마태는 “진홍색 옷”(마태복음 27:28)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명백한 모순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색상을 설명하는 주관적인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물이 어떤 색인지 항상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밤색, 진홍색, 버건디 등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색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조잡한 복제품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왕처럼 보이도록 옷을 입히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아름다운 보라색 옷을 입었습니다. 보라색은 왕족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낡은 군인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끔 “보라색”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백부장의 진홍색 망토였을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주님을 위한 면류관을 만듭니다. 왕관은 가시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긴 가시를 가진 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왕관은 아마도 긴 가시가 바깥쪽으로 방사되도록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광선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황제의 왕관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황제나 통치자가 그러한 머리 장식을 쓴 모습을 보여주는 동전이 자주 주조되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더욱 미화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보라, 여기 보라색 옷을 입고 왕관을 쓴 “왕”이 있다!

마태복음(27:29)은 그들이 예수의 손에 모조 홀 역할을 하는 갈대를 쥐었다고 덧붙입니다. 홀은 통치하는 군주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는 군주의 권력을 상징하며 주권을 상징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차려 입고” 왕으로서 자리잡았을 때 그들은 말로 그분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만세, 기이, 승리자, 황제”를 의미하는 라틴어 제국 인사말인 “Ave, Caesar, victor, imperator”를 모방하여 그를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예수에게 제기된 반역죄를 반영합니다. 마가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아이러니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주장을 놀리고 조롱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한 말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에게 또 어떤 짓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 Then they struck Him on the head with a reed and spat on Him; and bowing the knee, they worshiped Him. 20 And when they had mocked Him, they took the purple off Him, put His own clothes on Him, and led Him out to crucify Him.

As I just noted Mark doesn't mention them handing the reed to Jesus. It is mentioned however in Matthew where we read.

29 When they had twisted a crown of thorns, they put it on His head, and a reed in His right hand. And they bowed the knee before Him and mocked Him, saying, “Hail, King of the Jews!” (Matt 27:29)

Here they snatch the reed away from Him and use it to beat Him about the head. The reed itself would have been too light to really inflict damage but the act showed a callous disregard for Jesus' humanity. Their intention was to humiliate and degrade Jesus. As their excitement builds their abuse worsens. They spit upon Jesus. Actually it might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they continued to spit upon Him. This fulfils the third passion prediction made back in chapter 10.

And they will mock Him, and scourge Him, and spit on Him, and kill Him. And the third day He will rise again.” (Mark 10:34)

I have spoken before about spitting. What a truly vulgar and dehumanising thing it is to do. In ancient times, spitting in someone's face was a gesture reserved for the most loathsome of enemies; it was seen as an act that demeaned the very soul of its target. This was how these men abused Jesus.

The final insult was to offer Him their mock adoration or worship.

The bending of the knee was something one would do to pay homage to a great person like a king or ruler. They are doing it here not in a respectful way but in a demeaning way. They are showing how foolish they think it is that anyone would hold up a person like this for honour and respect. This was the Roman way. In the Roman triumphs that followed great victories captured leaders were paraded through the streets often in chains. The meaning conveyed to those watching was that Roman might had prevailed. Their enemy leaders had been stripped of all their power and glory, and were now only fit for ridicule and mockery. This is what their actions say about Jesus. Whoever this man was, or claimed to be now he is nothing now. Just someone to spit on and mock.

It's interesting that still today Jesus' blessed name continues to be mocked and ridiculed. In everyday life as well as in movies and TV shows it's always Jesus name that is used as a curse word. How sad it is that people who mock the name and His accomplishments will one day have to stand before Him and explain themselves. Trust me they won't be mocking him then.

The episode ends with them removing the purple cloak or robe from Jesus and putting his own clothes back on Him. This was actually unusual. Condemned criminals were normally forced to walk to the execution site naked. As they walked they would continue to be flogged. It was an additional layer of shame and humiliation. Obviously in Jesus case this didn't happen. Perhaps they clothed Him because they knew of the Jews sensitivity to nakedness. Also as experts in dealing out pain and death they probably realised that Jesus could not withstand a further flogging. He would pass out or die before He could be crucified. We also should not overlook how their decision to clothe Him led to the fulfilment of prophecy. In Psalm 22 we read the following prediction concerning the Messiah.

**They divide My garments among them,
And for My clothing they cast lots.
(Psalm 22:18)**

Clearly if Jesus had gone to the cross naked this prophecy could not have been fulfilled.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read the account of our king being hung on a cross.

**19 또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차며 침을 뱉고 엎드려 절도 하였다 20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후 자
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얹어서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풀고 나갔다**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께 갈대를 건네주었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29 가사편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
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마태복음 27:29)**

여기 구절에서 그들은 그분에게서 갈대를 빼앗아 그것으로 그분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갈대 자체는 실제로 해를 입히기에는 너무 가벼웠지만 그 행위는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한 냉담한 멸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폄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흥분할수록 학대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 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에게 침을 뱉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는 10 장에서 세 번째로 하셨던 고난 예언이 적중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 하사나라 (마복음 10:34)

이전에 침을 뱉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저속하고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고대에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가장 혐오스러운 적들에게나 하는 행동이었는데 이는 대상의 영혼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학대했습니다.

마지막 모욕은 그분께 거짓 숭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것은 왕이나 통치자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존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품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멸사하는 예수님을 명예와 존경으로 우러러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 방식이었습니다. □ □□□ □□ □□□ □□□□□ □□□ □ □□□□ □□□□□ □□□□□ 여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의미는 로마의 힘이 승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적 지도자들은 모든 권력과 영광을 박탈당했고 이제는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행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든, 지금의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침을 뱉고 조롱하는 자일 뿐이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복된 이름이 계속해서 조롱과 놀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영화, TV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저주의 단어로 사용되는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업적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분 앞에 서서 자기를 변명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때 그들은 그분을 결코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다시 입혀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 □□□□ □ □□□□□ □□□□ □□□□□ . 걷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인 수치심과 굴욕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벌거벗음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옷을 입혔을 것입니다. 또한 고통과 죽음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그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더 이상의 채찍질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절하거나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우리는 또한 그분에게 옷을 입히기로 한 그들의 결정이 예언의 성취로 이어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편 22 편에서 우리는 메시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읽습니다.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겹옷을 놓고 재비를 뽑아다 (사편 22:18)

만일 예수께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이 예언은 성취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번에는 우리 왕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Judging without thinking

I want you to consider the Roman soldiers from today's account. Some of them would have been on guard duty at the time Jesus was brought into the Praetorium. Others would have been lounging around in the barracks, playing gambling games or chatting with friends. They would not have been privy to the trials and would have been ignorant to the validity or otherwise of the charges levelled

against Jesus. Despite this what happened? They instantly assumed His guilt and proceeded to ridicule, abuse and humiliate Him.

Now today we are not beating people with reeds or spitting in their faces, but at times we can all be guilty of judging without thinking.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world of social media. How often is a story presented in such a way that we instantly come to a particular conclusion. A certain person is clearly wrong, evil or wicked. Another person is clearly innocent and is being attacked unfairly. To our shame we often just adopt the narrative that is presented us. We just assume that this person is wrong and deserves our ridicule or shaming. We rarely take the time to investigate the claims for ourselves. In this regard we are just like the Roman soldiers who went along with the abuse assuming Jesus must be guilty.

As followers of Christ we are to be careful, considerate and compassionate people. The world of social media is strident, unthinking and often cruel. We need to consider how we interact with this medium of communication. Is it really the best place to share and promote Christian values and ideals? Probably not.

But this idea of judging without thinking also extends to other areas in our Christian lives.

Today we are bombarded with information. If you desired you could leave here today and listen to 24 hours straight of preaching or bible teaching on YouTube or the internet. Often we let all this stuff wash over us without being properly critical. Without being properly judgemental.

There is a lot of good teaching to be found. But equally there is much that is bad, wrong and harmful. We must be careful. We must take what we read and hear and compare it carefully with God's Word. We need to carefully judge the people we are allowing to influence us. There are important questions we should ask. Where were they educated? What do they believe? Do they have an agenda? Is there some nefarious ideology underlying their message? Only after we have determined whether this person is biblically and spiritually sound should we allow them access to our hearts and minds.

Let us resolve to be careful and deliberate thinkers. We don't want to be like these foolish Roman soldiers who acted without thought and no doubt faced God's condemnation.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예수께서 관정으로 끌려가실 때 경비병으로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사에서 반둥거리며 도박을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예수에 대한 비난의 티당성이나 혐의에 대해 무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즉시 그분이 유죄라 인정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학대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대로 사람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지만 때로는 생각 없이 판단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는 즉시 특정 결론을 내리도록 이야기가 제시되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분명히 틀리거나 사악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분명히 결백하고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종종 제시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이 틀렸고 조롱이나 모욕을 받아 마땅하다고 가정해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주장을 조사하는 데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가 유죄임에 틀림없다고 가정하고 학대에 동조했던 로마 군인들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주의 깊고 사려 깊으며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세계는 격렬하고 생각이 없으며 종종 잔인합니다. 우리는 이 의사소통 매체를 어떻게 다룰 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기독교 가치와 이상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가장 좋은 공간입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없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원한다면 오늘 여기를 떠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24 시간 연속으로 설교나 성경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적절하게 비판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삼키도록 놔둡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쁘고, 잘못되고, 해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읽고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깊게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았나?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 특정 목표가 있나? 그들의 메시지 뒤에 사악한 이데올로기가 있나? 우리는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 건전한지 판단한 후에야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님의 정조를 받은 이 어리석은 로마 군인들처럼 되지 맙시다.

2 Shoddy duplicates

Are you familiar with the story of Aron Ralston? In April 2003 he was hiking in Bluejohn canyon in Utah. As he was exploring a narrow crevice a 360 kg boulder became dislodged and trapped his arm. For 127 hours he tried desperately to free himself. After realising that he was unlikely to be rescued in this remote region he made a dramatic decision. He knew that his only chance of survival was to cut off his arm off using a multi-tool. He survived the ordeal and his remarkable story was made into a successful 2010 movie called "127 hours" directed by Danny Boyle. The movie has a memorable scene in which Ralston contemplates what he must do. Unfortunately for him he had opted for a cheap multi-tool rather than a high quality branded equivalent. The blade on his cheap tool is dull and not really up to the job of severing his arm. He bemoans the decision he made in buying the knock off version, the shoddy duplicate.

The Lord Jesus in our account today is attired in shoddy duplicates of the real thing. A dirty old robe instead of a fine purple one. A reed instead of a golden sceptre. A crown made out of thorns instead of one encrusted with jewels. The soldiers of course didn't recognise the Lord Jesus as the real thing. They deliberately set out to mock Him and make Him look like a cheap and shoddy duplicate. We know Him as the real thing, He really i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But it got me thinking. How often as Christians do we opt for a shoddy replacement of the real or better thing? Let me ask you some questions. What are thoughts regarding church attendance? How often do we hear people say, I don't need to physically attend church, I can just watch an online service. Or, I'm not going to go to church today I'm too tired, it's okay not to attend this week. I'll listen instead to a service on the radio. These are shoddy duplicates. It's true that they are better than nothing but not better than attending in person as God commands us to do.

What about bible reading? How often have you been tempted to put down your bible and read a commentary or a Christian book expounding on the bible instead? These books may or may not be good and helpful, but they are shoddy duplicates of the bible. Nothing compares to actually being in God's Word.

Or what about when it comes to our relationships with othe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Do we really invest our time and energy into making our relationships fruitful and meaningful. Do we spend time with this person outside of church? Do we read the bible and pray together?

Do we call this person to see how they are doing and how we might help or encourage them. Or do we opt instead for something superficial, just seeing them briefly on a Sunday? This as I'm sure you would acknowledge is a shoddy duplicate of the real thing.

There are of course other ways in which we opt for the shoddy duplicate in our hectic and busy lives. As this year goes on let us endeavour to seek out and desire the genuine and real rather than the shoddy duplicate.

Aron Ralston 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2003 년 4 월에 그는 유타주 블루존 협곡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좁은 틈새를 탐험하던 중 360kg 의 바위가 떨어져 나가 그의 팔이 끼어 버렸습니다. 127 시간 동안 그는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외딴 곳에서 구조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극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존할 유일한 방법은 multi-tool 을 사용하여 팔을 잘라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고 그의 놀라운 이야기는 대니 보일 감독의 2010 년 영화 "127 시간" 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화에는 Ralston 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고만하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고품질의 브랜드 제품보다는 값싼 멀티툴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값싼 도구의 칼날은 무뎌서 그의 팔을 자르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는 짝퉁 버전, 즉 조잡한 복제품을 구입하기로 한 결정을 한탄합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 예수님은 실제와 똑같은 조잡한 복제품을 입고 계십니다. 고급 보라색 겹옷 대신에 더럽고 낡은 겹옷, 황금 홀 대신 갈대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이 아닌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 물론 군인들은 주 예수님을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분을 조롱하고 값싸고 조악한 복제품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압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진짜이면서 더 나은 것을 조잡한 가짜로 대체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선택합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출석에 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교회에 직접 갈 필요 없고 온라인 예배만 시청하면 돼. 오늘은 교회에 가지 않을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이번 주에는 교회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 대신 라디오로 예배를 들겠어. 이것은 조잡한 복제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직접 참석하는 것보다 낫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 읽기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이나 기독교 서적을 읽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 이 책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을 조잡하게 복제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관계를 유약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정말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밖에서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나요?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나요?

전화하여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돕거나 격려할 수 있는지 알아보나요? 아니면 일요일에 잠깐 보는 피상적인 것을 선택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실제의 조악한 복제품입니다.

물론 바쁘고 바쁜 삶에서 다른 많은 영역에서 조잡한 복제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허름한 복제품보다는 참된 진짜를 찾아 갈망하도록 노력합시다.

